

개요발췌문

아시아는 혁신, 창조성, 독창성의 허브이다. 수백 만명의 건강과 복지 증진의 상당한 진전에 원동력이 되면서 최근 수십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목격해왔다. 이러한 성장은 아시아를 세계무대로 끌어올려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은 상당한 차질을 빚어냈다. 불평등은 악화되었고 어렵게 얻은 진전은 좌절되었다. 최근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에 살고있다.ⁱ 그리고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연간 1조 5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 격차가 팬데믹의 결과로 최대 7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ii,3}

역사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소셜섹터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자선가가 협력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ⁱ 그러나 아시아의 필란트로피는 여전히 신뢰 부족과 근본적인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으로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해 온 *Doing Good Index*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Doing Good Index*는 아시아 각 국가의 공공, 민간 및 소셜섹터가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ⁱⁱ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는 자선가, 정책 입안자, 연구자, 사회공익단체(이하 SDO) 및 시민이 각 나라에서 기부를 가장 크게 증가 및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레버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해를 돕는 것에 목표를 둔다.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몇몇의 범지역적인 주제를 확인했다.

- **대부분의 나라는 소셜섹터가 번창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일련의 정책이 부족하다.** 한편으로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또 다른 한편으로 부담되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아직 많은 국가에서는 중용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소셜섹터에 대한 기부금은 변동적이다.** *Doing Good Index* 내 신흥국가는 역사적으로 외국 자금에 크게 의존해 왔다. 2018년판 이후 *Doing Good Index*는 아시아 전역에서 해외 기부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고, 2022년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자금 부족 해결을 위해 국내 및 정부 자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 **어려움이 있음에도, *Doing Good Index*는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과 기업이 협력하고 있으며 공유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시아의 생태계에 대한 평균 점수는 네 분야 지수 중 가장 높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헌신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필수적 인 부분이 될 것이다. 동시에 개인, SDO, 기업 및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소셜섹터는 기업과 정부가 자금, 조달 기회 및 기술 이전을 더 제공하면 완화될 수 있는 인재, 역량 및 자금제공의 심각한 부족을 직면하고 있다.

올바른 정책과 인센티브는 소셜섹터에서 사회적 투자의 양, 그리고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행위자로서 기관과 개인 모두의 역할을 고려하고, 기부의 다양한 형태, 즉 필란트로피, 임팩트 투자 및 기업 사회적 책임(CSR)을 조명한다. 잠재력은 거기에 있다. 세계 억만장자의 거의 4분의 1이 살고있는 아시아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자선 지출의 측면에서 미국에 필적할 수 있다면, 연간 미화 7,010억 달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⁴ 이는 해당 국가로 유입되는 순 해외 원조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이다.^{5,6,7}

자선 자본이 소셜섹터로 유입된다면 정부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게다가 *Doing Good Index*는 이 경로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첫 번째 조사 이후 방법은 발전해 왔고, 조사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 **2022년에는 2,239개의 SDO를 조사했고 아시아 17개국의 126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iii,iv} 지수와는 별도로, 본 보고서는 미얀마의 소셜섹터 상태에 대한 섹션을 포함한다.^v

본 보고서는 사회 투자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야를 조사한다.: **정부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정부조달, 생태계.**^{vi} *Doing Good Index*는 국가들이 공익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국가들을 네 개의 그룹으로 묶는다.: Doing Well, Doing Better, Doing Okay, Not Doing Enough. 고무적인 점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민간 사회 투자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몇몇 국가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했고, 다른 곳은 정체되어 있다. 모두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만, 어느 국가도 'Doing Excellent'라는 '최적의 기준(Gold Standard)'에 도달하지 못했다.

ⁱ 본 보고서에서 "소셜섹터"라는 용어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요구하거나 공급하는 모든 개인, 기업, 단체를 지칭한다.

ⁱⁱ 본 보고서에서 "국가"란 16개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홍콩특별행정구(HKSAR), 중국; 그리고 대만, 중국을 말한다.

ⁱⁱⁱ 해당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이다.

^{iv} "홍콩", "한국", "대만"은 홍콩특별행정구, 중국; 대한민국; 대만, 중국을 의미한다.

^v 미얀마는 어려운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Doing Good Index* 2022에 이어 참여할 수 없었다.

^{vi} 본 보고서에서 Government Procurement은 정부조달로 번역하며, 정부위탁사업을 포함한다.

본 *Doing Good Index*는 **코로나19가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세 가지 주요 발전을 확인한다. 첫째, 팬데믹은 개인, 기업 및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합된 대응을 하게 했다. 둘째, 아시아 정부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는데, 많은 경우에서 새롭고 종종 상충되는 정책을 시행했다. 몇몇 국가는 팬데믹 규제로 자유침해를 감추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은 소득 격차와 필수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포함한 기존 추세를 크게 가속화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섹터의 번영이 요구되지 만 아시아 대부분의 SDO는 변동있는 규제, 자금 및 인재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 잡히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 기업 및 소셜섹터의 강점을 회복 및 재건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섹터 간의 시너지는 필수적이다. 기부금에 제한 없이 접근하고 기부자와 기부금 수령자가 개입에 민첩하게 참여하게 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

왜 DOING GOOD INDEX인가?

적절한 인센티브와 정책으로 필란트로피와 여러 유형의 민간 사회 투자는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를 실행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믿는다. *Doing Good Index*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야심찬 목표에 기여한다. :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아시아 기부자들은 신뢰 부족이 기부의 장애가 된다고 종종 문제를 제기한다. 인덱스는 신뢰 부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요인과 이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발견한다.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한다. 필란트로피 활동은 국가 통계 기관의 관리 하에 있지 않으며, 데이터 수집에 있어 높은 우선 순위도 아니다. 본 인덱스는 필란트로피의 전망과 그 안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더 활기찬 소셜 섹터의 길로 안내한다. 본 인덱스는 자선가, 정책 입안자, 연구자, SDO 및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들의 국가에서 자선 기부를 가장 잘 증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지렛대가 당겨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야별 결과

분야별 결과는 민간 사회 투자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별 대응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규제

- SDO의 설립 및 운영 용이성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17개국의 모든 정부는 소셜섹터 관련 법률을 공개하지만, SDO에 변동되는 규제나 복잡한 행정, 비밀관적인 법의 적용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어려운 과제이다.
- 50% 이상의 SDO의 국가에서 해외 기부금에 관한 법률 변경은 해외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는 조직에 압력을 가한다. 이는 특히 해외 기부금이 주요 수입원인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우려되는 부분이다.
- 소셜섹터의 투명성과 책무성 장려를 위한 보고의무는 17개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모두 최소 한 개의 보고를 위한 의무사항을 요구하며, 15개국은 4개 이상 요구한다.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는 보고를 위한 사항이 자발적이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
- 정부는 정책 협의에 소셜섹터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이는 산발적이다. 소셜섹터와 정부의 협의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드물게 진행된다. 아시아의 SDO 중 약 3분의 1이 정책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세금 및 재정 정책

- 기부자와 기부금 수령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본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8년과 2020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 및 재정 정책 분야는 DGI의 종합 결과에 가장 밀접하다. 17개국 모두 기업 기부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제공하며, 개인 기부의 경우, 한 국가를 제외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 소득 공제율은 국가마다 편차가 커 0%에서 250%까지로 다양하다. 12개 국가는 개인 기부에 대해 100%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15개 국가는 기업기부에 대해 동일한 비율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15개국은 소득공제를 수입이나 수익의 일부로 제한하여 혜택으로 인한 효과를 감소시킨다.
- 유산기부 형태의 사망 이후 기부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부족하다. 7개 국가에서는 상속세가 있으며, 그 중 4개국만 유산 기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 대부분의 정부는 보조금 형태로 소셜섹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설문에 참여한 아시아의 SDO 중 44%는 정부 지원을 받고있다고 답하였으나, 이는 평균 수입의 12%정도에 불과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보고 의무 사항은 소셜섹터에 대한 기업 기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8개 국가에는 기업이 CSR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정부나 정책이 있으며, 아시아 내 8개의 증권거래소는 ESG 보고를 요구한다.

공익 생태계

- 사회는 지속적으로 소셜섹터를 지지한다. 정부, 기업 및 대중은 SDO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기부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여 소셜섹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 SDO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며 SDO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강한 규제 시스템 외에도 소셜섹터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 및 기부를 통해 대중과 SDO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동시에, 대중적인 스캔들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셜섹터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하다. 개인과 재단의 기부가 아시아의 SDO 수입의 39%를 차지하는 반면, 설문에 응답한 조직들의 76%는 기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다.
- 기부 이후에 아시아 SDO가 직면하는 문제는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조직의 절반 이상이 2020년 이후 가속화되는 인력 충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SDO직원이 영리 직원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인식과 급여에는 기부하지 않겠다는 기부자의 마음, 이와 동시에 요구되는 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 소셜섹터로부터 동기부여된 "목적에 있는 이익"이라는 사고방식이 민간섹터에 점점 더 자리잡으며 민간섹터는 소셜섹터와 밀접해졌다. 기업의 경우,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현금기부를 넘어서 현물기부, 기술 및 전문적인 프로보노, 자원봉사를 제공한다.
- SDO는 임팩트를 증폭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SDO의 4분의 3이 다른 SDO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키워 사회문제를 해결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협력을 가속화시켜 SDO, 기업, 정부의 시너지 효과의 기회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조달

- 아시아 정부는 SDO를 통해 조달을 진행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다. 설문에 응한 조직의 30%가 지난 회계 연도에 정부조달에서 수입을 얻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이다.
- 조달은 평균적으로 SDO 수입의 9%를 차지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중국에서의 정부조달은 SDO 예산의 55%를 차지한다. 장려보조금은 SDO의 조달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조달의 과정은 여전히 까다롭다. SDO의 64%는 정부의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조달과정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있다.



전력의 승수효과를 내는
DGI

결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과 유럽의 분쟁, 고조되는 아시아의 정치적 갈등은 2022년의 하늘이 어둡게 했다. 이 와중에도 지속적인 소셜섹터의 회복력은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한다. SDO는 종종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기도 하며 지역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과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계속 함께 일한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회복이나 활성화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증거 기반의 인사이트와 데이터 기반의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기부금은 소셜섹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선이다. 현 위기는 조직 운영 지원 및 자금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접근은 아시아의 표준에서 멀고, 기부자는 지속적으로 역량 구축에 대해 간과하거나 거부한다.

한편, 소셜섹터에의 해외 기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SDO는 재편성하여 국내 기부로 초점을 전환했다. 몇몇의 정부는 보다 많은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여하려는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주는 신호가 진실로 영향력 있는 아시아에서 올바른 재정 정책은 소셜섹터에 지지와 신뢰를 주며 영향력의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 필란트로피 또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아시아 태평양은 여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다. 이는 민간섹터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 모두가 수많은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점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APS는 *Doing Good Index*를 생성하면서 아시아 전역이 사회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보고서를 아시아에서 민간 사회 투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독특하고 체계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한다.

사회공익단체란(Social Delivery Organization, SDO)?

CAPS는 "사회공익단체"(SDO)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의 필요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영리"라는 용어는 많은 조직이 영리나 사회적 기업의 수입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 "비정부가" 또한 아시아의 많은 조직이 정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SDO"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색다른 역할을 하는 순수한 어드보커시 단체와 사회공익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용어다. 해당 용어에는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소득원이 있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이 포함된다.

*Doing Good Index*에 조사된 SDO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이며, 5%만이 영리 단체로 구분된다. 또 다른 8%는 비영리의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벤처로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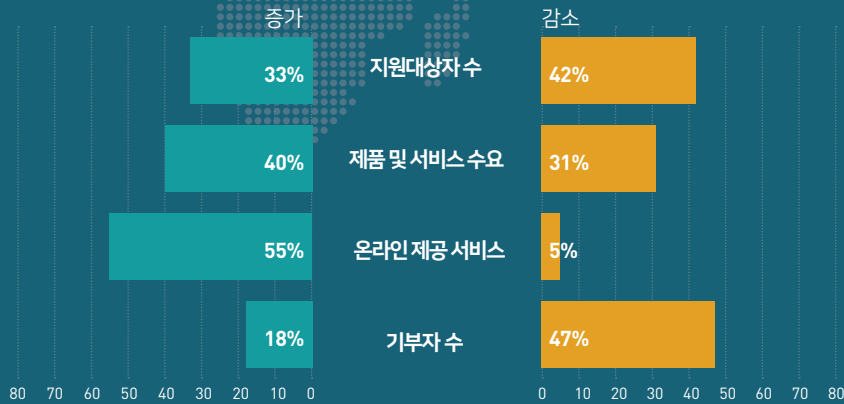
아시아

* #

* 본 지역 스냅샷과 이후의 스냅샷에서의 총합계는 반올림으로 인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도 자료는 17개 국가의 결과를 반영하며, 2020년도 자료는 18개 국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코로나19가 SDO 에 미친 영향



소셜섹터 조망



주요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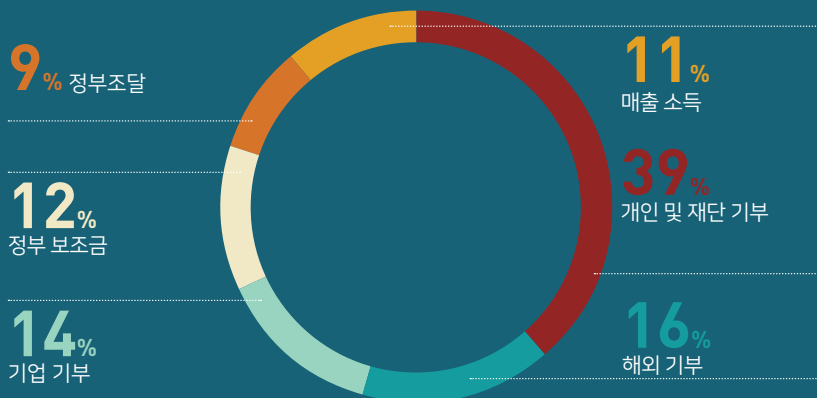


주요 재정 출처*

해외 기부금	39%
개인 및 재단 기부금	77%
기업 기부	54%
매출 소득	41%
정부 보조금	44%
정부조달	30%

* 각 유형의 자금을 받는 SDO의 %.

재정 출처에 따른 SDO 예산 비율*



* 2021년 회계연도 기준, SDO 제공 자료 참고

재정 출처 변화: 2022 v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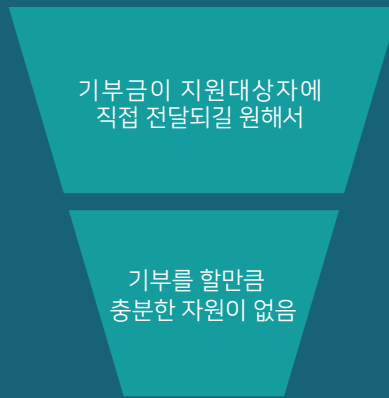


* 위 표의 의미 전달을 위해 국내 기부는 개인 및 재단 기부금, 기업 기부, 매출 소득을 포함한다. 정부 지원은 정부조달과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다.

개인 기부



기부금이 저조한 두 가지 이유



SDO에 대한 신뢰도



직원 채용 어려움



기업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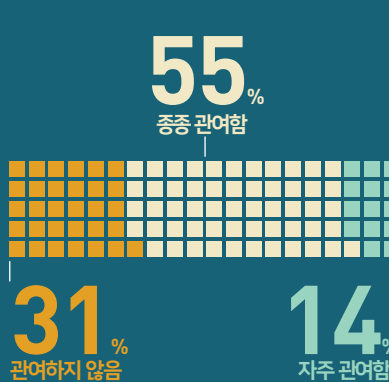
법의 이해도



정부조달



정책 협의에 관여하는 S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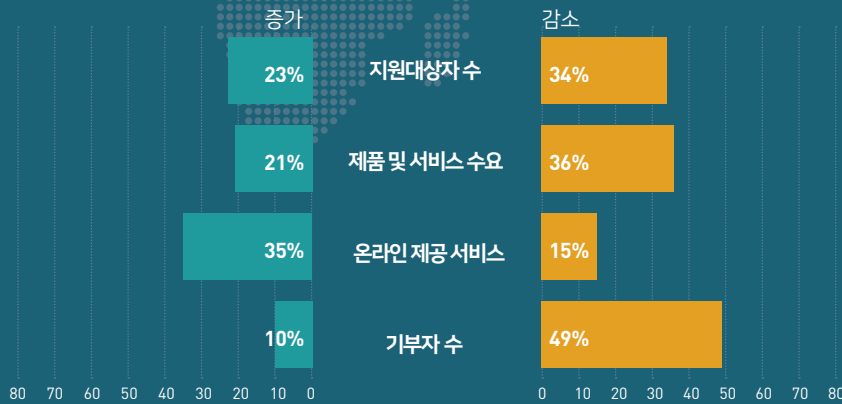


마이크로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비교하고 탐색해보세요.





코로나19가 SDO 에 미친 영향



36%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협력 사업을
수행한 SDO

소셜섹터 조망



주요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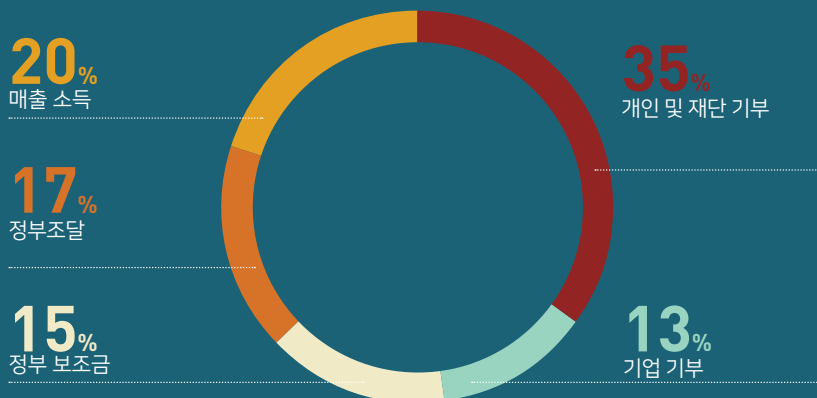


주요 재정 출처*

해외 기부금	10%
개인 및 재단 기부금	77%
기업 기부	58%
매출 소득	56%
정부 보조금	52%
정부조달	41%

* 각 유형의 자금을 받는 SDO의 %.

재정 출처에 따른 SDO 예산 비율*



재정 출처 변화: 2022 vs 2020*

국내 기부	▼	-5%
정부 지원	▲	6%
해외 기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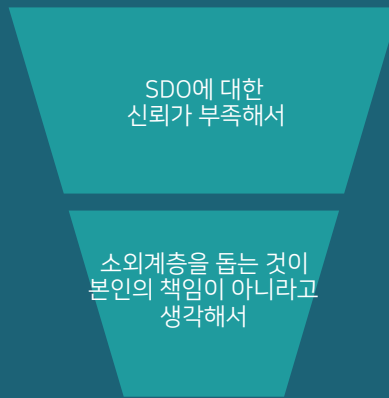
* 위 표의 의미 전달을 위해 국내 기부는 개인 및 재단 기부금, 기업 기부, 매출 소득을 포함한다. 정부 지원은 정부조달과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다.

* 2021년 회계연도 기준, SDO 제공 자료 참고

개인 기부



기부금이 저조한 두 가지 이유



SDO에 대한 신뢰도



직원 채용 어려움



기업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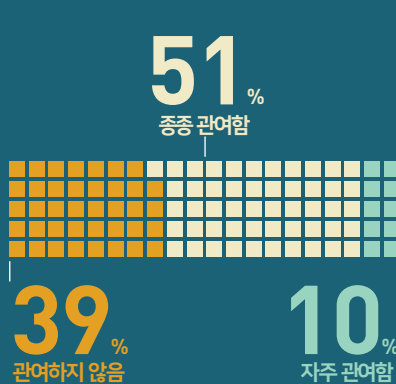
법의 이해도



정부조달



정책 협의에 관여하는 SDO



마이크로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비교하고 탐색해보세요.



부록 I - Doing Good Index

정부 규제	효율성	• 등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횟수 • 승인 소요시간 • 단일창구 존재여부
	기금의 흐름	• 해외 기부금 수령을 위한 승인 횟수 • 해외 기부금 승인 소요시간 • 해외 기부금 한도 • 기금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들
	책무성	• 보고를 위한 의무사항 개수 • 이사회의 법적 책임 유무 • 고위급 간부의 법적 책임 유무 • 규제의 집행 여부
	소통	• 법의 접근성 • 법이 이해하기 쉬움 •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세금 및 재정 정책	기부자를 위한 혜택	• 개인 및 기업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요청의 수월함 • 유산기부에 대한 세금혜택 • 기업기부 의무화
	지원대상자를 위한 혜택	• SDO를 위한 세금면제 • 정부보조금 수령 가능성 • 미사용 잉여금에 대한 처벌
공익 생태계	대중의 시선	• SDO에 대한 신뢰도 • 대중에 알려진 스캔들 • 개인기부 수준
	제도적 인식	• 필란트로피, SDO, CSR를 위한 시상 • 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제정일
	인재 인프라	• 직원과 자원봉사자 고용 •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비영리섹터 그리고/또는 필란트로피를 위한 대학교육 과정 • 임금격차
	바람직한 거버넌스	• 이사회의 존재여부와 그 구성원 • 이사회 내 기업 관계자 유무 • 이사회 내 정부 관계자 유무 • 엘리트층과의 연계
정부조달	조달 참여의 기회접근성	• 조달 참여 자격 • SDO에 특화된 혜택
	조달 진행절차	• 정보 접근성, 투명성, 절차의 편의성

미주

¹ Sumner, A., Ortiz-Juarez, E., & Hoy, C. (June 2020). *Precarity and the Pandemic: Covid-19 and Poverty Incidence, Intensity, and Severity in Developing Countries*. (WIDER Working Paper 2020/77).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WIDER), United Nations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www.wider.unu.ed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Working-paper/PDF/wp2020-77.pdf>

² Tian, S., Park, D., Jinjark, Y., Castillejos Petalcorin, C., & Villaruel, M.L. (2021, June 10). Filling the Finance Gap for a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Asian Development Blog*, Asia Development Bank. Retrieved from <https://blogs.adb.org/blog/filling-finance-gap-green-and-inclusive-recovery-2>

³ Ibid.

⁴ Ong, D. (2021, April 30). Why Is It Important To Understand Wealth in Asia-Pacific? *Knight Frank*. Retrieved from <https://www.knightfrank.com/research/article/2021-04-30-why-is-it-important-to-understand-wealth-in-asiapacific>

⁵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0). *GDP (Current US\$)—East Asia & Pacific, South Asia* [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Z4-8S>

⁶ Winkler, T., Bush, J., & Browning, J. (2021, June 15). Five Key Takeaways from Giving USA 2021: Member Notes. *Winkler Group*. Retrieved from <https://winklergroup.com/five-key-takeaways-from-giving-usa-2021-member-notes/>

⁷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2021: Disbursements, Commitments, Country Indicators* [Data file] Retrieved from https://read.oecd-ilibrary.org/development/geographical-distribution-of-financial-flows-to-developing-countries-2021_a50961e5-en-fr#page860



Website: caps.org

LinkedIn: [linkedin.com/company/capsasia](https://www.linkedin.com/company/capsasia)

Twitter: [caps_asia](https://twitter.com/caps_asia)

Facebook: [facebook.com/capsasia](https://www.facebook.com/capsasia)

Instagram: [capsasia](https://www.instagram.com/capsasia)

Newsletter: bit.ly/caps-wdg